



EPUB DRM 상호운용 기술명세 공청회 호환가능한 DRM 통해 전자책 활성화 기대

전자책 제작을 위한 'EPUB DRM 상호운용 기술명세'를 소개하는 공청회가 지난 2월 14일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EPUB DRM 상호운용 기술명세'와 해당 표준이 한국산업표준으로서의 이점과 필요성에 대해 소개하고,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됐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공청회는 신성욱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원이 KS표준절차 소개, 추진경과 보고 등을 진행했으며, 이어 강호갑 DRM인사이드 소장이 'EPUB DRM 상호운용 기술명세'를 소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에는 이재호 서울시립대 교수, 은종민 (주)한국출판콘텐츠 소장, 최두립 인터파크 팀장, 성대훈 박사 등이 참가했다.

전자책 불법복제 방지위한 DRM

강호갑 소장은 e-Book은 지난 십수년간의 시도와 노력을 통해 서서히 결실을 만들어가고 있는 디지털콘텐츠 산업분야의 핵심 콘텐츠라고 강조했다. 지난 1998년부터 시작된 전자책 시장은 포맷 표준화가 난황을 겪으면서 시장 형성이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2007년부터 아마존의 킨들이 성공하면서 e-Book 표준화가 진행됐다. 이에 애플, 구글, 소니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e-Book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2010년부터 아이폰, 아이패드, 갤럭시S, 갤럭시탭 등 스마트 기기에서의 e-Book 콘텐츠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어플이 공급돼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전자책이 활성화되면서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DRM이다. 그런데 아마존, 소니, 구글, 애플, 만디엔루니스 등 해외 업체는 물론이고 한국출판콘텐츠, 한국이퍼프, 교보문고, 인터파크, KT, NHN 등 국내 업체들도 각각 자신의 회사에 맞춰진 DRM을 사용하

면서 DRM이 너무 다양해서 오히려 독자들이 전자책에 접근하지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됐다. 이에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DRM의 호환성이다.

전자책 발전 저해요소된 DRM

각 업체마다 다른 DRM을 사용하고 있어 디지털 콘텐츠의 복제 및 이동이 불가능해 전자책 사용자의 사적복제 또는 공정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국제DRM 표준화단체의 표준화 활동에도 불구하고 일부 DRM 표준을 제외하고는 산업화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호환가능한 DRM 개발이 목적

EPUB DRM 호환을 위해 총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1단계에서는 암호화 기술규격, 전자서명 기술규격, 단말기 인증서 기술규격, 권리표현언어 기술규격을 포함하는 EPUB DRM 포맷 표준을 만든다. 2단계에서는 EPUB 뷰어와 DRM 고객 연동 표준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고, 3단계에서는 교차판매를 위한 DRM 고객과 서버연동 표준 인터페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표준화 추진이 완료되면 A사에서 구입한 e-Book 콘텐츠를 B사의 서재에서 조회하고 B사 뷰어로 이용할 수 있다. G